

섬김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정말 업혀도 돼요?
난 혼자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업혀보면 안 될까?

혼자 가면 내 책임이지만,
업히면 예수님이 책임입니다

“새끼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가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September 12,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2번 - 시편 19편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찬 송 / 8장 -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 3절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26장 - 구세주를 아는이들 (통일찬송 14장) 찬 양 / 약한 나로 강하게 봉 헌 / 구 민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찬송 404장) 성경말씀 / 요나 1:7-13 더는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3:14-19
무엇이 나의 간절한 기도제목인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웃과 교회를 섬기십시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성도의 사명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 기도 모임 9월 한달 점심친교 후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4. 교육/훈련 주일 오후(1:45/장소 컨퍼런스 룸), 제직/안수집사 교육이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제직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5.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6.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7.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니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8. 방역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9. 믿음의 뿌리 내리기 2021년 남은 기간
1) 기도 운동 2) 전심으로 예배하기 3) 성경 말씀 묵상하기
10. 노동절 수련회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중단 없이 지속적인 성숙과 전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9월의 사역 - 성장과 성숙 주간(5-11) 선교 주간(19-25)

선교 주일(26)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9/5, 12, 19, 26)

♥9월 평일축하♥ 이정운(30)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9/12	9/19	9/26	10/3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9/12	9/19	9/26	10/3
	구 민집사/최선운집사		김훈태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요나의 의도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 요나 1:3-6**

요나의 의도적인 불순종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은 초자연적인 폭풍과 풍랑을 만나 재화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분노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자주 넘어지며, 빈번히 시험에 빠지며, 심지어 사명을 잊으며, 의도적으로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하지만 말이다.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시며,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다.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에 감사하자. 요나와도 같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자.

더는 곤두박질 지지 않도록 / 요나 1:7-13

생사의 위기에 대한 반응

사람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요나: 깊이 잠들다

잘못과 그 결과를 직면한 후 모습

요나: 잘못과 책임을 깨닫고, 회개를 작정하다.

사람들: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과 모두가 함께 살려 하다.

사실상의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언행일치를 넘는 '신행일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더는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 요나 1:7-13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가 더 좋을 때가 있다. 요나가 그러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역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큰 피해와 생사의 위기를 마주했다.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 애를 썼고 요나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먼저, 요나의 의도적인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에 선원과 선장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초자연적인 재앙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그 이유를 요나에서 찾았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요나에게 묻는다. 그가 누구인지. 그것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재확인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그들에게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 도망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당연히 모두는 두려워한다. 바다를 만들고, 풍랑을 일으키는 신을 노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책망을 들은 요나는 정신이 뻘쩍 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질문은 곧 하나님의 질문과 같았을 것이다.

사마리아서 읍바로, 상선으로, 그리고는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영적 잠에 깊게 빠졌던 요나는 드디어 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요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동장치가 작동시키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그리고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 요나를 멈추게 하셨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요나를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자신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셨고, 이방인들 앞에서 시인하게 만드셨다. 따라서, 요나는 원인 제공자인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가 함께 생존할 방법을 찾았다. 아이러니이다. 요나가 10만을 초과하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짐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 세상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사람들이 성도의 사활을 염려해주는 것은 아닌가? 요나는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잊고 있던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달았고, 책임을 질 준비를 갖추었다.

요나처럼, 이런 한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 혹시 요나와 같은 완악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적이 없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이다. 이제 아는 대로 믿으며, 믿는 대로 살자. 그것이 언행일치를 넘어선 신행일치, 즉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 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능력이 되었다.

코로나 19로 다들 삶이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이 근신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기 좋은 환경이다.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이겠는가? 그동안 못 읽은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준비해서 다시 잘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별력은 눈과 귀에서 시작한다.

어떤 삶이 미혹되겠는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과 귀가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진다. 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징조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아는 것이 도리어 사탄이 미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에 눈을 두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

내가 힘든 청년의 때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돌아보니 사실 아주 간단했다. 나는 20대 초반,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을 미친 듯이 보았다. 온종일 5,60장 넘게 본 적도 많다. 그렇게 하루이틀이나 며칠만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다. 그러면서 성경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쉽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나는 환난이 오자 습관을 좇아 다시 담배를 피웠다. 하루에 두 갑을 피우면서도 아예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을 때였고 교회 갈 때는 피우지 않았지만,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남국아, 나 믿니?” “그럼요, 믿죠!”

“그럼 내가 준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니?”

나는 순간 당황했다. 성경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어서 다 읽었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고 끝낸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레위기는 정말 읽기 힘들었다. 레위기를 읽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읽고 나서 피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또 피우면서 힘겹게 레위기를 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시 119:103)라고 고백하며, 어느 순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그 길로 담배를 끊었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럴수록 예전에 끊지 못한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하기 시작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다.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해졌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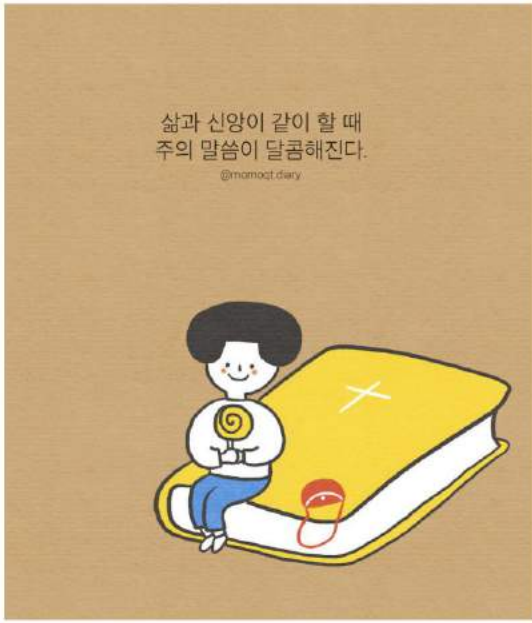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다.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어렵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은혜받은 말씀, 읽기 쉬운 말씀, 청년 때 은혜받고 즐겼던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 그 말씀이 다 은혜였고 읽다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분별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다.** 김남국, 『준비하고 있으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뿌려진 내 영혼의 양식이다.”

시편 119편 103-105절



삶과 신앙이 같이 할 때
 주의 말씀이 달콤해진다.
 @momoc2.dary

달콤한 말씀
 삶과 분리될 신앙은 힘이 없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후련을 받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신앙의 활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삶과 분리될 신앙은 힘이 없다.

신앙은 주눅도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도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삶과 분리될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신앙이 같이 할 때
 주의 인제가 항상 내 삶에 가득할 때
 주의 말씀이 달콤해진다.

이정남 작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